

<작가처럼 글하자> 꼬마작가 창작

우리반 반성문 대소동

김 만채 지음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지루한 수학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남자아이들은 선생님 눈치를 보았다. 선생님이 나가셨다.
남자아이들은 복도로 뛰어갔다. 술래잡기를 하며 아이들은 뛰어다녔다.
몇몇 아이들은 4층을 올라갔다.
그때, 성준이가 ufo를 본 듯 “야아악!”하며 소리 지르고 말았다.
소리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듯 울려퍼졌다.
교재연구실에 있었던 선생님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다.
그리고 말했다. “소리를 지르는 애가 누구야?”
선생님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얼음이 되어버렸다.



4층으로 올라갔던 아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진 아래층을 몰래 내려다 보았다.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가던 권수가 들켜 버리고 말았다.

4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권수를 본 선생님은 4층으로 올라갔다.

그 틈을 타 성준이는 몰래 반으로 들어 가려 했다.

하지만 그걸 본 영주와 건우는 선생님께 일렀다.

“선생님!! 재 도망가요!!”

건우가 소리쳤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옆 반 선생님이

교실문을 확

열고 나왔다.

아이들은 멀뚱 서

있기만 했다.

“아,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

담임선생님은 옆반 선생님을 말리며

아이들은 째려봤다. 그리고 옆반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은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칠판에 이렇게 적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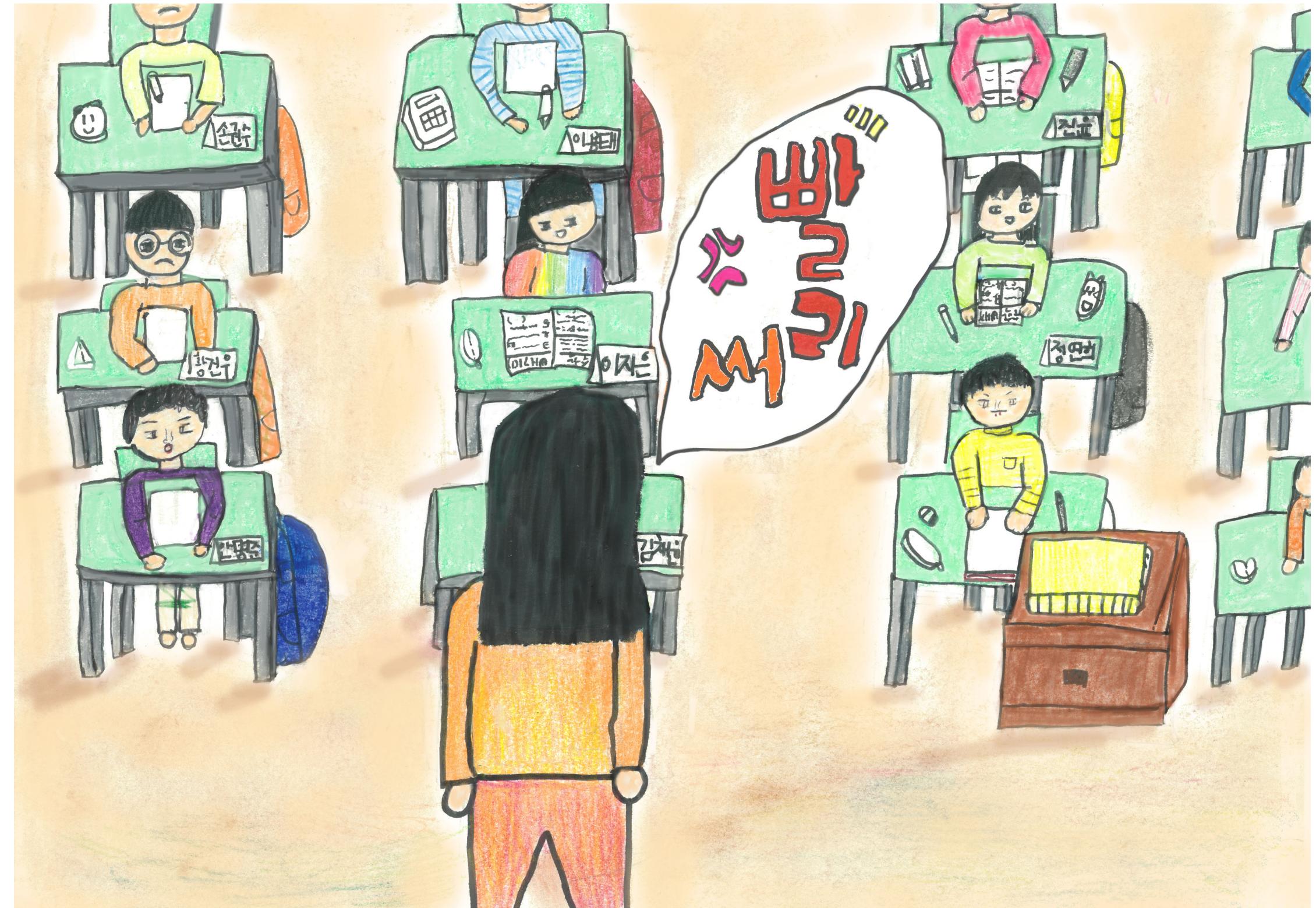
수학 38쪽~41쪽까지.

아이들은 다시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뛴 아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다시 교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아이들을 혼냈다
“아까 소리지른 애 누구야?”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춰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성준이요...!”라고 대답했다.
“김성준 나와!”
선생님 옆에서, 성준이는 쭈뼛쭈뼛
앞으로 나갔다.
“4층갔던 애들은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선생님은
소리높여 말했다.
“4층 갔던 애들 누구야?!!?!”
아이들은 말했다. “.궈..권수랑
건우..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손권 수, 황건우, 너희 성준이 뒤에서.
나머진 번호 순으로 서봐”
아이들과 선생님은 교실로 돌아갔다.
“너흰 애들하테 칭찬 두 번씩하고 다시 줄서”
아이들이 말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 했다.



남자아이들은 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지혜가 말했다. “그리고 아까 재가 제 팔을 쳤어요”
선생님은 대답했다. “응. 이따가 얘기하자.” 다시 반은 조용해졌다,



2교시는 쉬는 시간 없이 진행했다.

아이들은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선생님이 많이 화나 보이셔서
불만을 입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3교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일어나자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종이를 나눠 주었다.
성준이는 3장, 권수와 건우,
아이들은 2장씩 받았다.

“여기에 아까 혼난 일 자세하게 써”
뛴 아이들은 궁금해 하며
혼났던 일을 자세하게 썼다.
“다 쓸 때까지 쉬는 시간은
없어”

아이들 몇몇은 짜증 냈지만
반성문을 묵묵히 쓰기만 하였다.

그로 선생님은 칠판에 “다 쓰면 내세요”라고 적은 후
밑에 뛴 아이들의 이름을 썼다.

다음날, 바구니처럼 생긴 노란 상자에는 반성문이 겹겹히 쌓였다.

2교시가 되자 선생님은 아이들이 쓴 반성문을 한 장씩 읽었다.

그 일이 일어나고부터 아이들은 복도에 나가 뛰어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도 반성문을 쓰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치는 글

우리반 친구들이 반성문을 쓴 적이 있었다.
그 일이 인상 깊어 이 이야기를 썼고~
나만의 상상력을 더해 완성했다.
반성문을 쓰는 일은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이다. 누구든 반성문을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친구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떠올리며 재미나게 읽었으면 좋겠다.

김민수 lee

